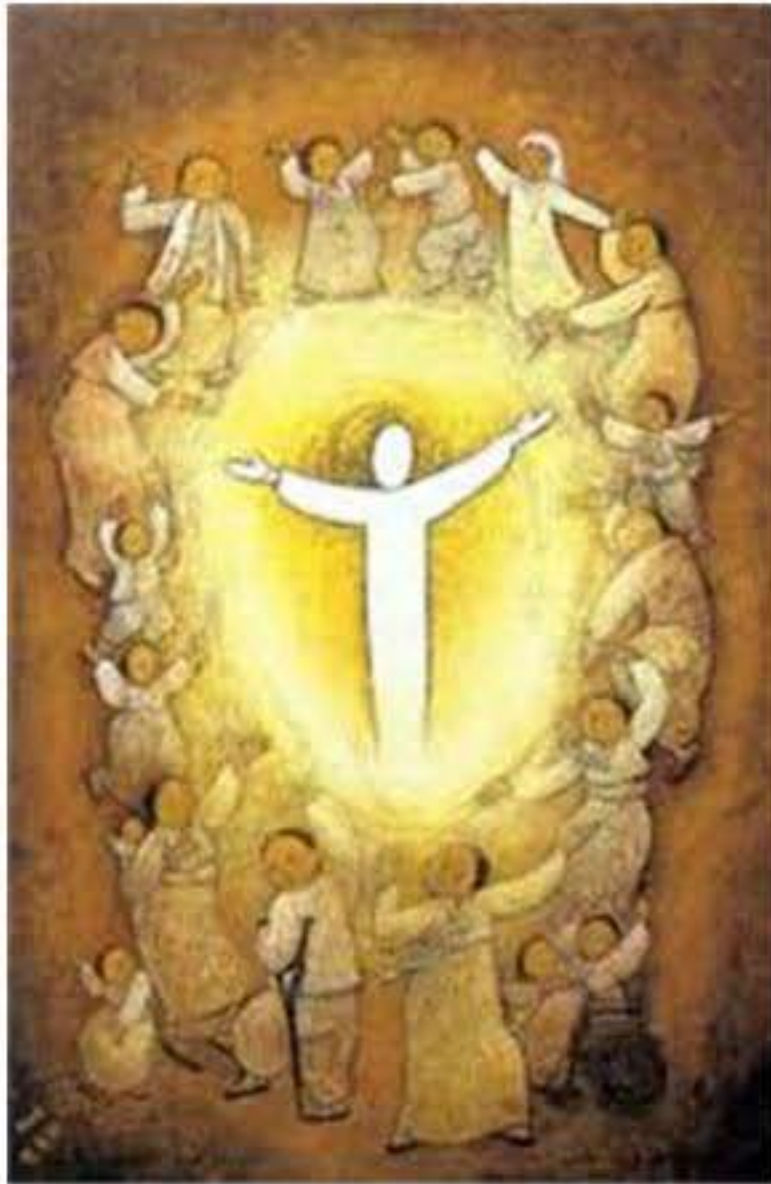




“알렐루야~~!!”

■ 미사 전례

- 제 1독서: 사도 10,34-37-38
- 화답송: (악보 참조)
- 제 2독서: 콜로 3,1-4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 복음: 요한 20,1-9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7:00

오전 9:00(영어미사)

오전 11:00(교중미사)

• 평일미사: 수·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00

◎ 화답송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필레몬은 사도 바오로에게서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이었다. 필레몬은 골로사이에 살고 있던 큰 부자였다. 사도 바오로와는 사목자와 신자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필레몬에게 급하게 전갈을 알렸다. 필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한 통의 편지를 들고 찾아왔던 것이다. “주인님, 오네시모가 찾아와서 주인님을 뵙고 싶어 합니다.” “누구라고? 오네시모라고 했나, 자네?”

오네시모는 벌써 오래전에 자신의 집에서 몸 붙여 살던 몸종이었다. 그는 몹시 게으른 종이었는데 어느 날 주인의 돈을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적이 있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오네시모처럼 주인의 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친 경우에 잡히면 엄벌에 처해지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순간 필레몬은 오네시모에 대한 생각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속으로 이놈을 당장 절단 내리라고 마음 먹었다. “어서 오네시모를 데리고 들어오너라.”

잠시 뒤에 오네시모가 필레몬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렸다. 이상하게 오네시모는 비굴하거나 유치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찌 보면 당당한 품위를 안으로 감추고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느낌을 줄 정도였다.

“주인님,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주인님의 종, 오네시모가 인사드립니다.”

필레몬은 아무 말 없이 굳은 얼굴로 오네시모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오네시모는 가만히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 한 통을 필레몬에게 건네주었다. 그 편지는 사도 바오로가 필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한편으로 놀랍고 반가워서 필레몬은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물었다. “네가 어찌 바오로 선생을 아느냐?”

“소인이 바오로 선생님을 로마의 감옥에서 뵈었습니다. 그 분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배웠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간의 사정을 다 말씀드릴터이니 이 편지를 저에게 쥐어주시며 주인님을 꼭 찾아보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필레몬은 반가운 마음으로 오네시모가 전해준 편지를 받아 들고 읽어 내려갔다. 그는 마치 오랜 벗을 만난 듯 얼굴은 불그스레 흥분되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혀있는 나 바오로와 교우 디모테오가 친애하는 우리 동료 필레몬과 그의 집에 모이는 교우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필레몬,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다정한 인사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 후 오네시모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네시모를 그대에게 보냅니다. 그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대에게나 나에게나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것은 마치 심장을 떼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가르치고 제자로 삼았던 것이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쳤다는 고백을 듣고 필레몬에게 보냈던 것이다. 필레몬은 사도 바오로의 편지를 읽자마자 바로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필레몬은 무조건적으로 사도 바오로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다. 필레몬은 단순히 사도 바오로의 부탁으로 겉으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했다.

그처럼 필레몬은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다시 용서를 청하러 돌아온 오네시모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받아들였다. 필레몬은 애정이 많고 다정다감한 사랑의 사람이었다. 필레몬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이웃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마태18,22)을 그대로 실천했다.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의 자비의 가장 큰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배반한 이를 용서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이에 대한 진정한 용서는 하느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복음을 받아들인 필레몬은 자신도 죄인임을 절감했을 것이다. 어찌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지 모른다. 용서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필레몬처럼 용서하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한 하느님을 가장 잘 닮아 가는 것이리라. <평화신문, 제665호(2012년 3월 3일), 허영엽 신부(서울대교구 상서목자리 전담)>

성삼 소식

새 영세자 소식

- 세례식: 4월 28일(주일) 오전 11:00 교중미사중
- ※세례 준비자 명단 (10명)

이름	세례명	구역반	이름	세례명	구역반
박준규	사도요한	5/1	정유진	라파엘라	1/3
배정준	가브리엘	1/3	정윤희	소피아	1/4
유기쁨	올리비아	1/3	정진영	스텔라	4/4
이영욱	헬레나	1/1	진애린	세실리아	1/1
윤혜림	미카엘라	5/1	윤도현	마르셀로	5/1

성삼 시네마

- 4월 시네마는 없습니다.

성모의 밤 미사 및 행사

- 일시: 5월 1일(수) 저녁 7:30 성당
- 묵주기도: 매주 수, 목, 토, 미사 30분전 성모상 앞

감사합니다.

- 故송세규(바르나바)의 장례미사, 연도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주신 교우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유가족-

동전 모으기(주일학교와 청소년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4월 14일	\$0.00	누계	\$328.33
--------	--------	----	----------

2019 야외 미사

- 일시: 5월 5일(일) 오전 10:00(묵주기도 09:30)
- 장소: Crescenta Valley Park(작년과 동일장소)
- 문의: 총무 이진석(예레미야) ☎(213)327.8876
- ※ 풍성하고 축복받는 5월 야외미사 2부 행사 때 사용할 물품과 현금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교우분들의 기도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 한국학교 · 청소년

성삼 한국학교 은총잔치

- 일시: 4월 27일(토) 오전 10:00~12:00
- ※한국학교 은총잔치에 필요한 물품(의류, 학용품, 잡화, 등)과 기타 도네이션 받습니다.
- 문의: 교감 박미향(안토니아) ☎213-507-1802
유 바실라 수녀님 ☎323-828-8876

타본당 · 단체

하느님의 자비 주일 행사

- 일시: 4월 28일(일) 오후 2:30
- 장소: 성 바실 한인 회관(3535 W. 6th St. LA)

남가주 ME 골프 대잔치

- 일시: 5월 4일(토) 11시까지 접수
- 장소: Oak Quarry-Riverside-
- 참가비: \$100.00(점심, 저녁포함)
- 문의: 정현식(마르코)&세레나 ☎(213)327.9027

전 례 봉 사	일시		해설	독서	봉헌	평 일	해설		독서
	금주	11:00	김 미카엘	2구역 4반	5구역 3반		수	정 엘리사벳	원죄없이 잉태되신 모후 Pr
	다음주	07:00	백 로즈마리	2구역 5반	5구역 4반		목	홍 사도요한	성령 기도회
		11:00	조 프란치스코				금	박 안토니아	금요 성경반

전례봉사

중식 봉사	금주	5조 / 1구역 2반	육계장	다음주	6조 / 1구역 3반
-------	----	-------------	-----	-----	-------------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금주	단체명	시간	장소
	꾸리아	12:45	성당		ME	12:30	고등부교실

단체모임

우리들의 정성 (2019. 4. 14 현재)

교무금	6,930.00	교무금 / 건축헌금 (30명)	
주일 헌금	2,656.00	강태훈, 경재선, 구강호, 권영주, 김길중, 김복선, 김정환, 노환일, 독고근, 박일주, 박지연, 서정풍, 안진환, 엄순애, 우순남, 윤상진, 은희정, 이강호, 이석환, 이인원, 임 희, 정명옥, 정승재, 주창호, 차관선, 최기창, 최정훈, 한광희, 한선영, 한창희,	
건축헌금	690.00		
감사헌금	200.00		

본당살림



부활을 축하합니다.



고려 여행사 LA 8가와 웨스턴 코너 since 1972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패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패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에옥)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Hair World 최 세실리아 213-268-8549 853 S. Western Ave. 코리아타운 로데오 몰	Global Financial & Insurance Life/IRA/사업체/전몰/종업원상해/그룹건강 Juliana Jin Kim 818-640-3992 pncglobal@gmail.com Lic#0G10657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애실) ☎213-500-9393	이길웅(분도)치과 Vine Dental Care ☎ 323-465-2828 954 Vine St. Los Angeles Melrose + Vine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교정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희(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클라라	장영화 Piano Studio *음대·대학원 피아노과 졸업 MM Degree *대학교수직 및 피아노스튜디오 20년 경험 *각종 피아노 콩쿨 다수 입상 *MTAC & SYMP 멤버 Studio (818) 400-1343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친정 김치 맛있는 친정엄마의 손맛 가주/한남/프라자/도레미 김 아오스당 (213)623-7088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에어콘 수리 및 설치 최효선(요안나) 626-804-4178	늘 웃는 치과 임플란트·교정·보철·일반치과 966 S. Western Ave. #207 (323)734-3710, (323)734-3720 이 요한 DDS, Ph.D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어 김 . M. E. 21까지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 곳은 뚫어드리고 뚫린 곳은 막어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애틀미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화장품 생활 필수품. 조 마리아 818-653-3313 고 소피아 818-522-4073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 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문의: 213-220-177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동업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Tell : 213-388-8055